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17면에서 계속

을 타파 못합니다. 삼세사의 내용을 타파 못한다면 사공법을 몰라, 사공법을 모른다면 원심력을 기르지 못해서 원통지활을 못해. 이것이 바로 자기한테 부(父)가 있고, 자기한테 스승이 있고, 자기한테 부처가 있고, 자기한테 법신(法身)이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바깥에서 공짜에 바깥에서 공짜 찾듯이 그렇게 찾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백 년을 가도 안되고 천 년을 가도 안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왜 걱정하게 만드느냐는 얘깁니다. 자식이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우리는 또 교유를 받음으로써 좋고 그릇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데라도. 그렇기 때문에 뭘

만치 받아서 지금 나온 거거든. 그러니 그 한 것만 치 악과 선 속에서 그냥 허덕이지 말고 그 속에서 활짝 벗어나란 얘깁니다. 벗어나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믿고 놓고 모르고 아는 거를 다 감사하게 놓고 '거기서밖에 할 수 없지.' 하고 놓고, 그러고 난 뒤 생각을 잘하시란 얘깁니다. '언젠가'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절대로 언젠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짢을 게 없습디다. 어저께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연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 가지 생산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 돌아옵니다. 이걸 이해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과거지마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볼

분이 그런 것만 배우면 건방져지고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하고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진짜 자기가 작용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나빠진 부분을 좋게 할 수 있고 좋아진 걸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지, 보고 듣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미래를 본 거 아닙니까? 미래가 아닐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5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이 안양을 보십시오. 그때 50년 전에 있었다 생각하고 한번 미래로 돌아서 지금을 보십시오.

미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앞에 그러한 말을 하면 "그럼 왜 부처님 법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하겠죠.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깨달아서 자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알게도 해놓고 높게도 해놓을 수 있으니까 높다는 말을 할 수 없고 알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유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높게도 해놓을 수 있고 알게도 해놓을 수 있는데, '저기는 몇 해 전에 이렇게 왔고 저기는 몇 해 이전엔 높고'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도 의심 마시고 믿고 자기 주인공 자체의 근본자리에서 말하세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이 마음을 타파할 때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가서 아! 자연적으로 스스로서 마음의 능력이, 샘물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공부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면 어떻게 배사에 가겠겠습니까? 노력이 있지 않고는 내 내공의 타파를 못하며, 삼심 내공의 타파를 못합니다. 이 세상 사공법을 모릅니다. 오심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즉 원심력입니다. 원통력을 스스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뛰어넘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진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의례의식이나 모든 절차 계율 같은 것은 이미 아시리라고 믿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오래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과 인간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들을 보세요. 천차만별의 짐승들을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 삼아, 지금 얘기도 됩디다마는 얘기 한마디 할까요? 어느 큰 황새가 날다가 길을 다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길을 질질 끌면서 돌 뜰름으로 들어갔습니다. 돌 뜰름으로 들어가서 한쪽 구석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큰 구렁이가 있다가 하는 소리가 "당신, 이렇게 만날 줄 몰랐소."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하니가 사실 얘기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시 남편이었고, 당신은 내 아내였는데 내가 불미스럽게 돈을 훔쳐다 주었고 당신은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당신도 사람의 탈을 잃고 이렇게 황새가 됐으니 참 미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람으로 회현을 하려면 소로 태어나야 사람이 될 수 있소." 하면서 구렁이가 얘기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으로 지금이라도 태어날 수 있지만 나는 남의 것을 훔쳐오고 남을 죽였으니 아픔을 주고 모질게 했던 걸 책임지고 다 해결해야만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나는 며칠 안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소로 갈 날이.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 아래 돌 뜰름에 박쥐란 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박쥐란 놈들이 우글우글한데 거기 박쥐 소굴로 들어갔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박쥐 소굴인지 모르고, 그 영혼은 박쥐의 암컷, 수컷 사랑하는 데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박쥐가 될 수밖에. 수만 마리가 우글우글 있으면서 어미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말입니다.

그런 연후에 죽은 뒤에 다시 그 돌 뜰름 속에 큰 구렁이 부부가 사랑하는 데로 그만 들어갔으니 자기가 구렁이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렁이 어머니가 자기더러 하는 소리가 "나는 어차피 이렇게 돼서 이 굴 안에서 살고 있지만 너를 배고서

다."라는 얘기를 그 구렁이 어머니가 구렁이 자식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노라고 얘기를 황새에게 했어요. 황새가 그 소릴 주욱 들더니만 그 소릴 듣는 순간에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 과거 생각이. 그래 "나도 같이 먹었으니 같이 갑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는 참, 그 외양간으로 가서 영령은 허물을 벗고 외양간의 부부 속으로 즉, 말하자면 소 안팎 수컷이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그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황새로 태어난 말이야, 돌이. 그러고는 죽는지 사는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소로서의 일을 하면서 뛰어 나갔던 거야. 그 소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뒤고 자기 어머니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뒤아서 다음 생엔 사람이 돼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착하게 세상을 살려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거들거들 거쳐 오면서 우리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에게 접근 안 하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금방 뭐가 되고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박쥐였을 땐 현재도 구렁이었을 때는 미래죠? 그런데 구렁이가 또 과거가 되고 소가 현재가 되고요. 또 소가 과거가 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게 현실이겠죠. 한 찰나입니다. 몸을 바꿔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한 찰나야. 그러니 이 도리를 모른다면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천만 가지 나오는 모든 것이 전자의 과거로부터 미래로 오는 것이니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생각을 좋게 하라!

(다음 호에 계속)

잘되고 못되는 거 바라지 않고
좋고 좋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리에다가 습기와 모든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다 평등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놔라. 돌이 아니니까 주인공에 전해진다면 바로 자기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생각을 내면 아버지가 돼버리고, 돌이 아닌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생각했던 마음 그대로 자식이 전달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끝질 않는다는 얘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경험을 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너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구나." 할 때 에너지로 인해서 그냥 넣어주란 얘깁니다. 주인공에 맡겨봐, 잘 끌고 다니라고. 그러다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밀어서 그렇게 가게끔 한다면 여러분한테 걱정이 뭐 있겠습니까? 잘되고자 생각을 짓는다는지 '이렇게 하면 잘된다더라.' 하는 것도 거기다 놓으세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마찬가지로, 죽고 사는 거는, 한술에 매여 있어.

각본대로 이렇게,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여기에 (뒤편의 목행화를 가리키시며) 중세제도 해냈고 하세제도 해냈지만, 각본대로 여러분이 한 것

때에, 체가 있는 몸중이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입니다! 또 미래로 돌아간다 하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본다 하는 것은 초보적인 문제인데도 그것을 몰라서 과거를 묻고 현재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또 미래를 묻습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법당을 지을 때에 그런 말을 했죠. 어느 스님께서 "여기에서 지으면 공생함을 면할 수 없어서 여기가 좋지 않은데..."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좋고 좋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전 잘되는 거 바라지도 않고 못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좋을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다면 안 좋겠죠. 뭐." (대중 웃음)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고속도로가 나고, 수원이 앞으로는 큰 도시가 되고, 또 여기도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좋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누가 들으면 아는 소리도 잘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말 못하는 것은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나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

천만 가지 나오는 모든 것이
전자의 과거로부터 미래로 오는 것이니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생각을 좋게 하라!

부터 그 뜻을 알았으니 너는 앞으로 자라면서 조금도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풀뿌리로서 연명하고, 습기로서 연명하라." 하고 가르쳐 주면서 또 말하기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백 년을 여기서 견뎌야 소로 환토할 수 있느니라. 소로 환토를 해가지고도 남의 것 훔친 거 일하면서 다 갚아야 된다. 그래야 인간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

*위 법문은 1988년 2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 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정가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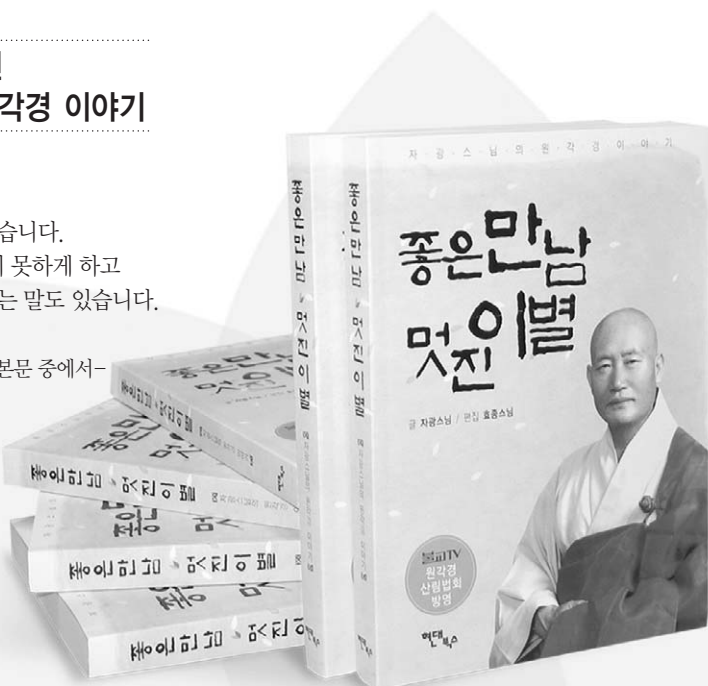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심만의 국토를 지나 왕생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를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범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속 수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화양산 봉안사 주지 · 前) 오달산 김행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前) 한재 김행사 회주 · 前)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前) 원주 문경불교대학 학장 · 前) 원주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중도가(鐘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대한한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어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이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 발생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오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重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정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